

중앙바이오텍, 조류독감 치료제 2006년 상용화

국산 동물용 조류독감 치료제가 빠르면 2006년 상용화될 것으로 보인다.

바이오기업 중앙바이오텍은 천연식물성분을 이용해 자사가 개발중인 조류독감 치료제가 동물용은 물론 이르면 2006년 하반기에 인간용으로 개발하고 앞으로 3-4 년 안에 실용화될 예정이라고 10월19일 발표했다.

박종식 사장은 “현재 송창선 건국대 수의대 교수에게 생약성분 조류독감 치료제 개발을 의뢰해 2005년부터 5년간 연구개발에 들어갔으며, 일단 예정대로 동물용 치료제를 내놓은 뒤 인간용 제제 개발에 전력을 쏟을 방침”이라고 밝혔다.

중앙바이오텍이 9월 줄기세포연구소인 마리아바이오텍의 지분 23.8%를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“동물약품 생산으로는 성장의 한계가 있어 업종 다변화를 꾀한 것이며, 앞으로 연구경과를 봐 추가투자도 적극 검토할 방침”이라고 강조했다.

<화학저널 2005/10/20>